



제11차 물류정책토론회

인천시,

21세기형 동북아 국제물류거점표준도시 모델

“인천시가 21세기형 동북아국제물류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거점을 모태로 지역생산, 비즈니스, R&D, 금융중심의 거점화가 되어야 한다.”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문, www.kola.or.kr)와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가 지난 14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1차 물류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 글로벌물류 선도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물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박창호 인천광역시장 항만공항물류 특별보관은 “국제물류의 주요한 여건변화로 대규모 유통센터기능, 부가가치 운영기능, 조립생산기능을 가진 거대 공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륙간 국제물류네트워크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천이 글로벌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서비스센터와 국제무역 및 운송을 위한 물류거점기능의 병행이

필수적이며, 기존 요건인 해운항만분야는 물론 항공 및 정보 등 다수 분야를 집

적한 중심기지역할 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조와 물류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이테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지역생산거점, 동북아시아의

Sea&Air가 통합된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관련 컨벤션센터와 전시회, 박람회를 개최하여 비즈니스거점화 함





과 동시에 물류분야의 고급 인력양성, 국제금융단지 등을 조성하는 5대 허브 기능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도 “현 참여 정부의 국책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의 주 내용이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이다”며, “이러한 전략의 성공 전제조건은 인천지역 물류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라고 역설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화의 성공에 대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성공조건은 5대 허브 기능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각의 정책과제들은 어느 하나만을 통해서서는 달성될 수 없고 모든 정책들이 동시에 꾸준히 추진되어야만 인천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및 산학연관의 물류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 이 물류정책토론회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천광역시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면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지정학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해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오늘 물류정책토론회가 인천지역의 물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 우리 인천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석 (사)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박창호 인천광역시장 항만공항물류특별보좌관,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예충열 동북아시아위원회 물류분과위 간사, 이상근 삼영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용진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각의 주제발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주최측인 한국물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류정책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물류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류**